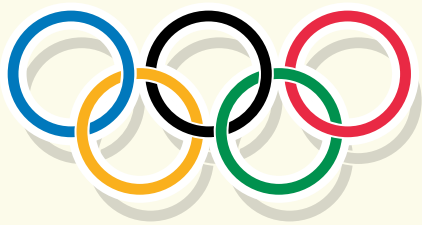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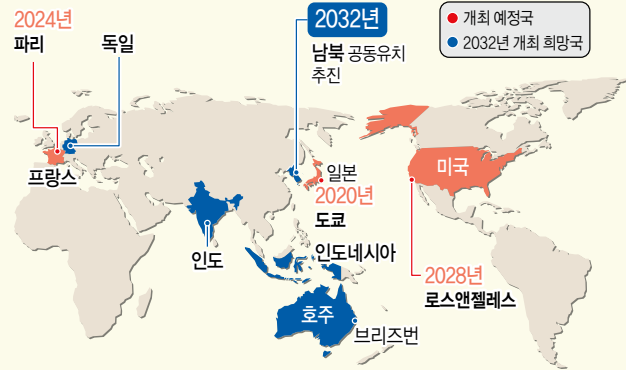


남북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남북한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은 11월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분과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IOC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IOC는 "(남북한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대화를 통해 훗날 입후보에 필요한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는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토일 기자

남북 2032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자료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



씨름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 눈앞

남북한이 각각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대한민국의 씨름'을 심사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기구는 북한이 신청한 '씨름'에 대해서도 등재 권고로 판정했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 정보 보완, 등재 불가로 나누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이번이 없는 한 그대로 수용된다. 이번 권고내용은 11월 26일~12월 1일 모리셔스에서 열리는 제13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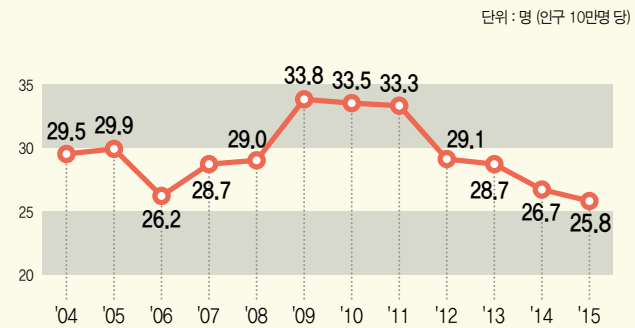
김토일 기자

한국 자살률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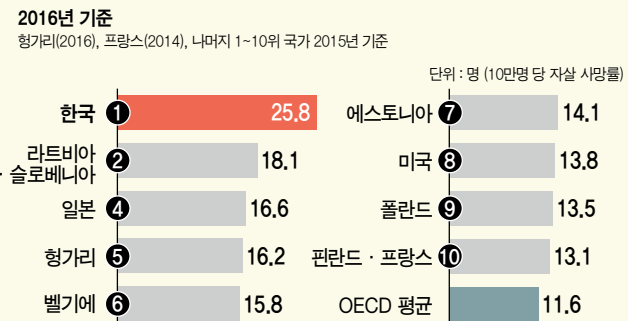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자살률)은 한국이 25.8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치는 11.6명으로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라트비아·슬로베니아(18.1명), 일본(16.6명), 헝가리(16.2명), 벨기에(15.8명) 순으로 자살률이 높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2.1명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점을 찍었다.

김토일 기자

한국 자살률 추이



OECD 주요국 자살률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OECD

중국, 선양-백두산 고속열차 추진



선양~백두산 달리는 고속철도 놓는다

중국이 동북지역 랴오닝성 선양과 백두산을 잇는 고속철도를 만든다. 랴오닝성 당국의 입찰감독 인터넷사이트에는 최근 랴오닝성 성도 선양에서 백두산 인근 바이허를 잇는 고속철도 공사를 위한 역사문화영향평가 입찰 공고문이 올랐다. 공고문에 따르면 철도건설은 선양에서 연변자치주를 거쳐 바이허까지 주요 행정구역 6곳, 13개 역을 지나는 430여km 길이의 공사다. 중국은 총 660억 위안(10조7천억원)을 투자해 54개월 안에 철도를 완성할 계획이어서 올해 말 착공하면 2022~2023년쯤 완공될 전망이다. 이 철도에는 전기를 주동력으로 쓰는 고속열차가 시속 350km로 운행될 예정이다.

장성구 기자